# 전주시, 사람중심 복지정책 확대

## 민간 복지조직 동네기획단 운영 등 추진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복지정책에서 소외받지 않고, 각자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네복지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복지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주사람' 재단을 설립하고, 작지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청소년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전주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전주만의 동네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정책인 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성공적으로 연계해 '사람 중심, 전주형 복지공동체'를 정착시키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온 동네복지 시범 6개동과 동 복지허브화 추진동 등 올해는 총 20개 동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중심의 민간 복지조직인 동네기획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동 단위 민간 복지자생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네기획단을 중심으로 민·관, 민·민 협력(MOU)을 통해 복지자원의 적극적 연계를 추진하고, 동 단위 복지의제 발굴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된다.

시는 또, 올해 전주형 사람 중심 복지공동체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주사람' 복지재단 설립도 본격화한다.

시는 전라북도 심의 및 시의회 동의 등 재단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정책 기획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복지자원 연계 △지속 가능한 나눔 컨텐츠 개발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 조성 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떠오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소양도서를 제공하는 '지혜의 반찬', 저소득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희망 줍는 손수레' 지원사업 등 소외계층에 작지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시는 정기적인 급식(도시락) 만족도 조사 및 영양평가를 통해 엄마의 밥상 급식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맞춤도서 구입시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희망 줍는 손수레' 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후원자를 연중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과 연계한 안전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5대 분야, 15대 중점사업, 60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주기적인 장애인 시설점검 및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체험 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62명이 증가한 424명에게 행정도우미와 사서보조, 장애인 안마사, 장애인 인턴쉽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를 연중 지속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여성·가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전주 아이숲' 조성 △완산드림스타트 신축 이전 △아동·청소년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여성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참여활동을 보장하고, 직장여성 및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충상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그동안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시행해온 작지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누구하나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사람 중심의 전주형 복지시스템 구축에 온힘을 다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교비 횡령 서해대 전 이사장 징역 5년

수 백 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해대 전 이사장 A씨에게 대법원이 실형 5년을 확정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전 이사장은 2014년 교비 146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금융기관 입금내역 등을 위·변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또한 서해대 전 총장 C씨(61) 등과 공모해 2014년 2월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유령학생'을 모집하고 허위 학사관리 자료 등을 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A 전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재금 교육부 전 대변인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원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대학인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서해대 전 겸임교수 B씨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6억7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브로커 이 모 씨는 A 전 이사장이 대학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김 전 대변인 등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건네 달라고 부탁한 총 6억7000만원 중 김 전 교육부 대변인에게 2200만원 등 일부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교비를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각종 금융자료를 위조했다"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주고 국가장학금을 가로채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A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 전 이사장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A 전 이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닥섬유 친환경 포장 디자인 범용화 모색

### 한지산업센터에서 워크숍 개최
### 친환경 포장 경제성 확보에 중점
### 한지가 지닌 가능성에 공동인식

닥섬유 친환경 포장디자인의 범용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열려 주목을 끌었다.

닥섬유 친환경 포장디자인의 범용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열려 주목을 끌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19일 전당 4층 교육실에서 전주시 소재 포장디자인 관련 전문업체들과 연구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선농식품 포장디자인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신선농식품 포장 기능성 강화를 위한 닥섬유 친환경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 골판지 포장재 대신 친환경 포장디자인의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핵심 쟁점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은 ▲ 신선농식품 포장디자인의 현황 ▲ 신선농식품 포장디자인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신선농식품 포장디자인의 범용화 전략 등의 설명과 함께, 포장디자인 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노하우와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수렴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 니즈(needs)를 고려한 포장재로, 한지가 지닌 가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행 골판지 포장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지를 활용한 신선농식품 포장디자인의 경제성 확보만을 따져 무조건적인 원가절감 측면을 강조하는 것보다 다양한 지기구조개발, 상용화 가능한 디자인개발 등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영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설 연휴 특별교통근무기간 추진

전북지방경찰청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명절을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근무기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교통근무 추진의 첫단계로 2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지역과 대형마트, 터미널등 혼잡장소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어 26일부터 30일까지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고속도로, 국도 등 귀성길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연휴기간 역시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상설중대 등 490여명과 순찰카, 싸이카, 헬기 등 137여대의 장비를 이용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하여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 갓길위반 등 정체요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귀성객들은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무질서한 운전행위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 군산 교통사고 위장 살인… 경찰 "보험금 노린 것"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군산 아내 살해 용의자가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55)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홧김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구속 초기 당시 아내 고모씨(53) 앞으로 들어있던 보험은 2억4,000만원에 달하는 6개의 생명보험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결과 추가적으로 보험 1개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밝혀진 생명보험은 무려 3억 3,000만원에 가까운 액수로 기존 보험들과 합쳐볼 시 5억 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

## 무허가 전어 치어 싹쓸이 포획 한 어민 검거

새만금 방조제 내측 해역에서 무허가로 전어 치어를 싹쓸이 포획 후 냉동시켜 보관한 어민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방조제 내측 해역에서 사료용으로 판매하려고 전어 등 각종 어류 치어 약 130톤을 포획 후 냉동시켜 보관하던 K씨(47)를 검거하여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K씨는 새만금 내측에 치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 소유 7톤 급 양식장관리선을 이용하여 양 조망 어구를 적재, 하축하여 치어를 무분별하게 포획하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